

2025 05
통권 301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남적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짝을 티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넌곳 천주교안동교구사무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박상연 올리아
(갈전마티아 본당 반주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 43. 4)

성경 말씀은 성 마티아 어린이집 원장인 이청조 글라라 수녀님(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수녀님께서 친필로 적어주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도 성소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수녀원에 입회해서 수련수녀로 양성을 받고 있을 무렵에 너무 힘들어서 수도 성소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날 너무 힘든 마음에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혼자 성당에 갔었지요. 그때 거센 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듯 저의 성소가 흔들리고 지쳤을 때 한 줄기 빛처럼 저를 감싸며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저의 성소를 굳건하게 해주었고, 저를 교회의 사람으로 축성된 자로 실아가도록 힘이 되어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인간적 원인들

11.

기후 변화의 인간적-‘인류적’- 근원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지 살펴봅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수치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데, 19세기까지 온실 가스 농도는 300ppm 미만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산업 발전과 맞물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8년부터 날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온 마우나 로아 기상 관측소가 증명하는 것처럼, 최근 5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제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고 있을 무렵에, 탄소 배출량은 400ppm이라는 역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는데, 2023년 6월에는 423ppm에 다다랐습니다. 1850년 이후 총 순배출량의 42퍼센트 이상은 1990년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안동 감목대리구에서 안동자치교구로”(2)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안동감목대리구는 설정 당시 특별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감목대리구장이었던 구인덕 신부는 당시 대리구 소속 사제들의 하인 역할을 자처하였다. 방인사제로서는 대구교구 소속이었던 김옥태(레오, 1934-2024) 신부뿐이었다. 김옥태 신부는 1961년 3월에 사제서품을 받고 부산 프란치스코 수도원, 월배본당, 금호본당, 신령본당을 거쳐 1970년 1월에 점촌동 본당 주임을 맡게 되자, 안동교구로 적을 옮겼다.

안동감목대리구는 사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해서 다시 구인덕 신부는 파리와방선교회 신부들을 초청하였다. 처음에 대구교구장 서정길 대주교가 대전에서 활동하던 파리와방선교회 신부들을 안동감목대리구로 이동시켰지만, 그 인원으로는 경북 북부지방의 방대한 지역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당시 다인본당에서 사목하던 대구교구 소속 이길준 바오로 신부를 계속하여 신설 교구인 안동교구에서 사목하도록 배려하였다. 이길준 신부는 1978년까지 안동교구에서 활동하다가 대구교구로 돌아왔다.

1969년이 되자, 대구교구와 안동감목대리구는 공동으로 “안동교구의 설정” 소식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1969년 5월 30일, 대전교구에서 활동하던 두봉 신부가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다는 교황청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구인덕 신부는 사제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왜관감목대리구로 교구장 주교가 부임할 때까지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사실 안동교구 설정은 서정길 대주교의 독단적인 결정을 교황청에 보고한 것이었다. 당시 안동감목대리구장이었던 구인덕 신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서정길 대주교가 안동감목대리구를 독립적인 안동교구로 분할하려는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별도로

있었다. 우선 대구교구는 지리적으로 너무 방대하였고, 경북북부지역은 대구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구교구청으로서는 활동범위를 다 소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정길 대주교는 안동감목대리구를 대구교구에 분리하여 독립한 자치교구로 승격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포항과 영일군을 대구교구로 이양하면서 의성군을 안동교구로 편입시켰는데, 이 같은 일련의 사안들은 모두 서정길 대주교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한편 구인택 신부는 감목대리구 책임자로서 안동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영주 1년, 봉화 1년 및 청송과 봉화를 번갈아가면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사실 안동에서 기거하였을 때도 함께 생활한 신부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구인택 신부의 활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당시 대구에 머물던 구인택 신부가 안동에 오게 된 배경은 순전히 서정길 요한 주교의 명령 때문이었고, 또 그가 초대 안동감목구장이었던 하(河)신부 후임으로 감목대리로 오게 된 것은 파리외방선교회의 요청 때문이었다. 당시 하 신부는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이었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 등지를 왕래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구인택 신부가 임명되었다는 후문이 있었다.

1962년 2월 11일, 구인택 신부는 안동감목대리로 임명되었다. 임명된지 한 달 뒤인 1962년 3월에 안동으로 왔으며, 별다른 환영식은 없었고, 당시 안동본당 주임이었던 여동찬 신부와 식사한 것이 전부였다.

2대 감목대리로서 부임한 구인택 신부는 감목대리구 관내 신부들의 정기적 모임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한달에 한 번 정도 묵성동 감목대리구 관사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모임은 1박2일을 기본으로 하였다. 주로 하루는 피정을 하고, 하루는 사목현안에 관한 토의를 실시하였다. 참석했던 신부들은 총 14명 정도였다. 다음호에서도 계속하여 교구설정 전후의 교구상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내 삶의 구원 청년회

상주지구 청년회장
계림동 본당 김명기 다비드

나는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냉담자로 살아왔다. 타지로 진학하게 되고 군대, 그리고 취업 이후 주말에 매일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멀어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향에 내려와서도 ‘아 성당나가볼까’ 라는 생각만 가졌지 쉽게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온 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울감과 술에 빠져 살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남성동 보좌신부 최한별 사도요 한이라고 합니다. 혹시 상주지구 청년회를 만들어나가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3월 1일에 시간이 되실까요?”

집과 일을 반복하던 삶 속에 냉담하기 전에 성당에서 알고 지내던 형, 동생, 누나,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셨을거란 생각에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나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상주에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연락을 해 봤는데 본당 청년 중 연락을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내가 소속된 계림동 성당 청년들은 아무도 연락을 못 받은 상황이라 신부님께 혹시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셨는지 여쭙보니, 이름모를 자매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청년이라고 연락처를 주셨다고 했다. 우울감에 빠져있던 중 비어있는 성전에서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일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회 활동을 하며 너무 행복했다. 30대에 이렇게 많은 포레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드물기도하고, 어릴 때 느꼈던 ‘아 빨리 성당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득 차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청년회 활동을 안하는 교우들에게 ‘같이 활동하자, 진짜 재밌다.’라고 말하며 지구 청년회 활성화에도 열심히 힘썼다. 활동이 계속되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무척 보기 좋다, 얼굴이 진짜 밝아졌다’ 등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내가 느끼기에도 우울감이 거의 해소되었다.

어릴 때 귀찮고 미웠던 성당이 나는 지금 너무 좋다. 미사 중 성가를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 열심히 연습하고 부르다 보니 지구 청년미사때 신자분들께서 ‘성가 너무 잘 들었다, 성가 들으러 청년미사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변 냉담자들에게 청년회 함께하자는 권유도 계속하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청년의 부모님들께도 종종 감사인사를 듣는다. “명기야, 너 덕분에 요즘 아들놈 바뀐 모습이 너무 좋다 고맙다.”

나는 청년회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행복을 얻었다. 이 행복을 다른 청년들에게 너무 베풀고 싶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주변 청년들에게 권유할 것이다.



숙취 해소에 좋은 한토하 삼법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술을 마실 때는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지만 과도한 음주 후에는 항상 괴로운 법이다. 그래서 술은 자기 능력에 맞게 적당히 마셔야 하는데 술을 조절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술을 못 이길 정도로 마시면 다음날 속이 쓰리고 울렁거리면서 두통이 있기도 하고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기도 한다. 이걸 숙취라고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과음한 다음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나 고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숙취는 음주 후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가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세트알데하이드탈수소효소(ALDH)의 작용으로 아세트산으로 처리되는 동안에 불편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생기는 숙취를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한방에서는 빠른 숙취 해소를 위해 한토하(汗吐下) 삼법을 쓴다.

제일 첫 번째가 하법(下法)이다. 과음한 다음 날 변을 보고 나면 속이 편해지는 데 알코올과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소변에서도 알코올 냄새가 나고 대변에서는 악취가 더 심해서 ‘이런 독소를 담고 있으니 힘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법은 가급적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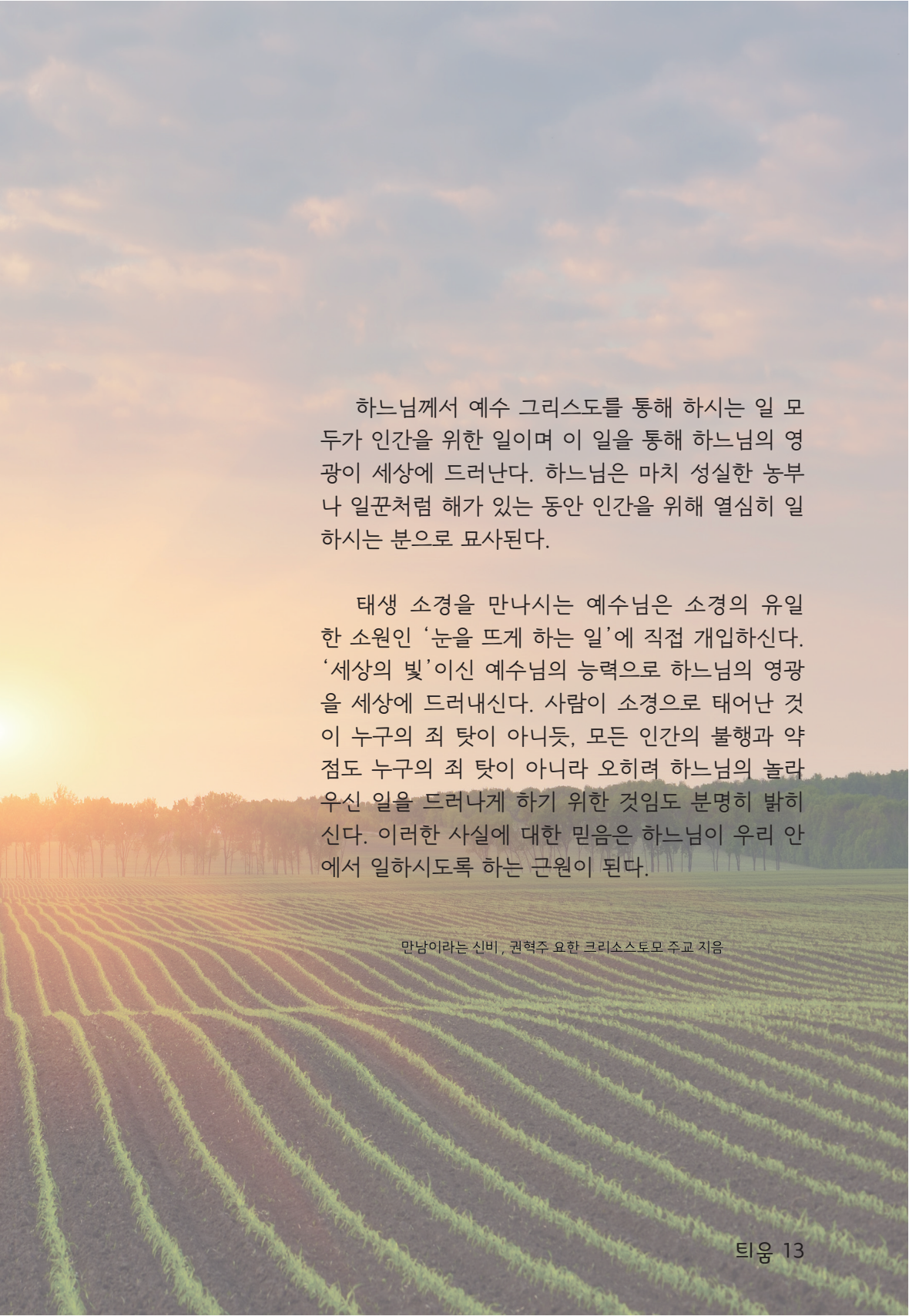
두 번째는 땀으로 술독을 내보내는 한법(汗法)이다.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몸을 담그고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사우나에 들어가 땀을 쫓 빼고 나면 찌뿌둥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한결 개운해진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술 마신 다음날은 밤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충분히 물과 당분을 보충한 다음에 가급적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한 오후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땀을 빼면 수분 결핍과 당 저하를 초래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방법인데 먹은 것을 토하여 속을 비우는 토법(吐法)이다. 먹은 술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얼른 비워야 한다. 토할 때도 요령이 필요한데 그냥 적당히 비워야지 억지로 다 토하려고 하다가는 식도에 상처가 나서 각혈을 하거나 식도에 염증이 생길수가 있으니 가볍게 토하고 멈추어야 한다.

한토하 삼법 이외에 화룽점정 하듯 해주면 좋은 것이 술로 상처받은 위장을 따뜻한 해장 음식으로 치유하는 온중법(溫中法)이다. 해장으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콩나물이 들어간 음식들이고, 복어나 황태, 명태, 대구로 끓인 맑은 탕이 좋다. 그게 없는 경우는 우거지 해장국이나 장터국밥도 되고 빈 속에 뭐든 채우는 것이 좋은데 가급적 담백한 음식과 국물이 낮고 너무 맵고 짜거나 간이 많이 된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 모두가 인간을 위한 일이며 이 일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 하느님은 마치 성실한 농부나 일꾼처럼 해가 있는 동안 인간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태생 소경을 만나시는 예수님은 소경의 유일한 소원인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직접 개입하신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탓이 아니듯, 모든 인간의 불행과 약점도 누구의 죄 탓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임도 분명히 밝히신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근원이 된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스토폴로 주교 지음

서문동 본당 남적공소

Q : 남적 공소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우 1 : 남적 공소에서 자랑할 것은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다른 공소에 비하면 월등하게 크고 오래된 십자가입니다. 또 종이 67kg인데 이 종을 달 때는 저분 시아버지가 지게로 저서, 올라가 단 겁니다. 공소가 지금 모습을 갖추기까지 신자들의 손이 직접 안 간 데가 없습니다. 67년도에 성당 마당에 성모상이 큰 게 있었는데 다른 성당에 있는 것을 우리 공소로 옮겼습니다. 차에 직접 신고 오는데 참 무거웠습니다. 저 혼자서 리어카로 옮겨 억지로 세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우리 공소 담이 흙담인데 무너져 있어서 신자 아닌 동네 아이들이 넘어 다니기도 했는데 오래 계시던 신부님들이 담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신자들이 밀가루 주는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당이 꽉 차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자 수가 점점 줄어 제가 공소 회장을 오래 하고 있는데 회장을 바꾸려고 물색을 해 놓아도 도시로 이사 가고, 연세 많으신 분들만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봉사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교우 2 : 아주 오래전 제가 애도 낳기 전, 젊을 때부터 우리 큰집에 시동생이 성당에 다녔습니다. 우리 공소를 짓기 전부터 큰집 시동생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나보고도 성당 나오라고 해서 20살쯤이었을 때부터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93살인데 제가 성당에 다니고 나서 얼마 안가서 공소가 생겼습니다.

교우 3 : 박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외서의 본가에 사시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전교 회장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 교구가 대구 교구에서 분가되기 전에 전교 회장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 당시 젊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삼 일만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우가 자꾸 없어지니까. 상주 본당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동네에

스물하나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여기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부터 어른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노인네 분들과 같이 본당으로 가자고 하면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총무를 하면서 이곳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공소가 발전도 안 되고 신자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갈수록 예전보다 재미가 없어지네요. 그러나 성당을 칠하는 것도 내 손으로 색깔을 내가지고 칠하고, 지붕도 우리 아저씨 있을 때부터 직접하고 그랬는데도 발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희망이 있겠지요.

Q: 공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교우 4: 저는 시내 살지만 오랜 시간 우리 공소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공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공소에도 몇몇 분은 시내로 가기도 합니다만 우리 공소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인원이 한 10명 정도라도 되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들니까 그게 좀 안타깝워요. 딱히 불편한 점을 들라면 영성체를 자주 못 하는 게 아쉽습니다.

교우 5: 여기 계신 형님은 우리 공소에 진짜 꼭 필요한 사람 같아요. 신부님이 오신다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두부를 직접 만들고 하루 종일 직접 쑥을 뜬어서 떡을 해서 공소 사람들을 다 먹여요. 본당에 다니다 공소 온 지는 오래 안 됐는데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시내 본당에 가면 미사 참여하고 그냥 돌아오면 끝인데 공소에서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얼굴 보면서 서로 기분 좋은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화목해서 좋더라고요. 공소 생활을 화목하게 하는데 여기 형님이 한 몫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사 정신이 대단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박수도 한 번 제대로 못 쳐 드렸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59항-166항

- 159항**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받음의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160항**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을 제기할 때에는, 주로 그 전체적 (), 의미, 가치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치열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161항** 현재의 생활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이미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 162항** 많은 사회 문제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문화, () 결속의 위기,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부모들은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소비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 163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난 ()만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심각한 환경 훼손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인류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 164항** 개별 국가만의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들을 다루려면 세계적인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165항** 정치와 산업은 우리 세상이 당면한 ()한 도전 과제들에 적절히 반응하는 데에 게을렀습니다.
- 166항** 최근에 있었던 환경에 관련된 세계 정상 회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가 결여되어 참된 의미가 있는 효과적인 세계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5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물	불	적	가	정	연	미	치
세	균	도	난	방	수	열	마
사	형	세	수	향	하	우	스
자	회	상	대	게	정	산	리
가	정	적	명	치	자	속	정
위	합	의	적	긴	급	의	개
발	견	의	미	웃	소	노	집
정	지	을	로	음	사	래	흠

3월 당첨자

이정희 글라라 (예천 본당)

김기겸 세실리아 (남성동 본당)

자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1 -똥 살리기 2-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인간은 천하없어도 음식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음식물은 물론 지구상 모든 생명의 원천인 햇빛 에너지의 산물입니다. 식물과 동물 모두를 먹는 잡식성인 인간은 소화작용을 통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섭취된 음식물 에너지의 약 30% 정도만 인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고 나머지 70%는 똥과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똥은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생명의 여분으로 유기물질이 풍부한 에너지원입니다. 전통 농업사회에서 이 똥은 대부분 논이나 밭으로 돌아가 쌀과 같은 곡식이나 채소로 다시 우리 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는 개나 돼지의 영양 만점 음식으로 제공되었다가 다시 양질의 개고기나 돼지고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폐기물이란 없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폐기물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어떤 쓰레기라도 다 재활용되었고 생태계는 순환되었습니다.

1. 인류는 지구의 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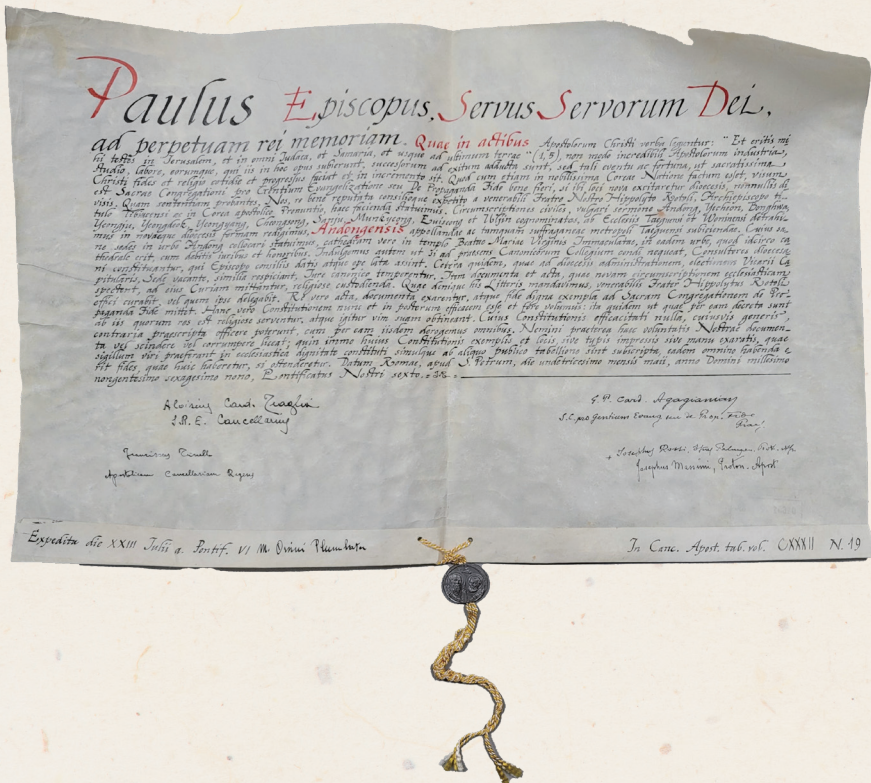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폐기물을 만드는 이상한 종으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 지구 밖 우주에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지구상에 이런 생물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류라는 종은 특별합니다. 지구 생태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류는 지구에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가히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인간들은 유용한 에너지이자 거름인 똥을 일부러 돈을 들여 먹는 물로 씻어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을 또 엄청난 돈을 들여 정화해서 다시 먹는 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또 돈을 들여 작은 유조선 같은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산에서 서쪽으로 200km 지점,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로 63km 지점,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지점은 똥 찌꺼기 해양투기 지점입니다. 인간의 똥 냄새가 사라진 이후 삼천리에는 GMO 사료를 먹인 가축들의 똥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곤충과 조류들, 혹은 미생물들이 찾을 만한 신선한 똥이 없습니다. 쇠똥구리도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똥을 황금빛 곡식과 채소로 보지 않고, 폐기물로만 바라본 결과 인간도 피조물도 살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세상으로 만든 겁니다.

2. 없어져야 할 수세식 화장실과 다시, 살려야 할 푸세식(재래식) 화장실

우리나라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62년 마포 아파트 세면기, 욕조, 좌변기가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것이 아마도 아파트에 수세식 화장실이 본격 보급되는 신호탄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0년대 이후 아파트가 도시 주거 공간으로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은 아파트의 필수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택들도 빠르게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었습니다. 1977년부터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만 음식점과 유흥업소 허가가 났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단연 깨끗한 위생시설을 갖춘 근대화, 도시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도시에서도 분뇨차나 똥지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 푸세식(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의 역사는 기껏해야 근대화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사오십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똥이란 불결한 것이며, 각종 질병의 온상이라는 우리의 위생 관념이 신념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똥은 음식물쓰레기나 왕겨, 톱밥, 벚짳 등과 함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 과정을 거치면 오염물질이 아니라 똥과는 전혀 다른 물질인 훌륭한 거름이 됩니다. 다시 말해 칼륨, 질소, 인이 포함된 녹색 퇴비가 되어 훌륭한 천연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분해 과정에서 각종 병원균과 기생충은 모두 죽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독성 화학물질까지도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런 훌륭한 거름이자 보물인 똥을 인간들이 폐기물로 취급하면서 바다에 버리고, 방송에서조차 똥을 부적절한 언어로 만들어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똥에 대해서 너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똥입니다! 아니, 똥이 미래입니다!’

안동교구 설성에 관한 교황 바오로6세의 대칙서
(1969년 5월29일, 51.4cm*35.5cm)



이 교황 문서는 교황 바오로 6세가 1969년 5월 29일 자로 안동교구 설정을 허가하는 인가서이다. 문서의 가운데 밑에는 납도장이 달려 있다. 대칙서로 번역하는 Bula라는 라틴어는 문서를 원형의 납도장으로 봉인한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납도장의 앞면에는 바오로와 베드로의 모상이 뒤에는 당시 교황 이름이 부각되어있다.

대칙서에는 안동, 예천, 봉화, 영주, 영덕, 영양, 청송, 상주, 문경, 의성, 울진 지역들과 그 지역 주민들을 대구교구와 원주교구에서 분리하여 안동교구로 설정한다는 것과 안동교구는 대구관구에 속하며, 안동교구의 주교좌는 안동시에 두고 안동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성당’을 주교좌 성당으로 하여 영예와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복된가!

박상연 율리아
본당 반주자 갈전마티아성당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갈전 마티아 본당 반주자 박상연 율리아입니다.

세례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실 때 수사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마리스타 야간학교에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암선고를 받으셨고 돌아가시기 전의 희망이 성가정을 이루는 것이어서 할머니와 온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장의 길

제가 반주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백일도 안된 저를 위해 피아노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일찍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첫영성체 후부터 어린이 미사 반주로 시작해서 중학교 올라가서는 교중미사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주일날 중고등부 미사에 교중미사까지 반주를 하게 되다 보니 저도 슬슬 지쳐가고 불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보다 불평의 소리가 제 마음에 크게 자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럴 때 마다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께서 너에게 아주 좋은 몫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불평하는 태도는 교만이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저의 힘든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다행히 대학에 진학하면서 만세를 부르며 안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했던 마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 중에 성당에서 반주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고향으로 가서 반주를 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도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반주 봉사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번거롭고 싫기보다는 주말마다 여행하는 기분으로 기차를 타고 안동과 서울을 오가며 저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인 2000년 대학원에 로마에서 열리는 대회인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 전세계 청년들과 미사를 봉헌하였고, 희년에만 열린다는 로마 4대 대성전에 있는 성문도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마음으로 통과하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큰 은총의 시간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던 시기에 전 교구장이었던 박석희 주교님의 부고로 장례기간 동안 반주를 맡게 되어 졸업 연주 준비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변의 격려와 도움으로 졸업 연주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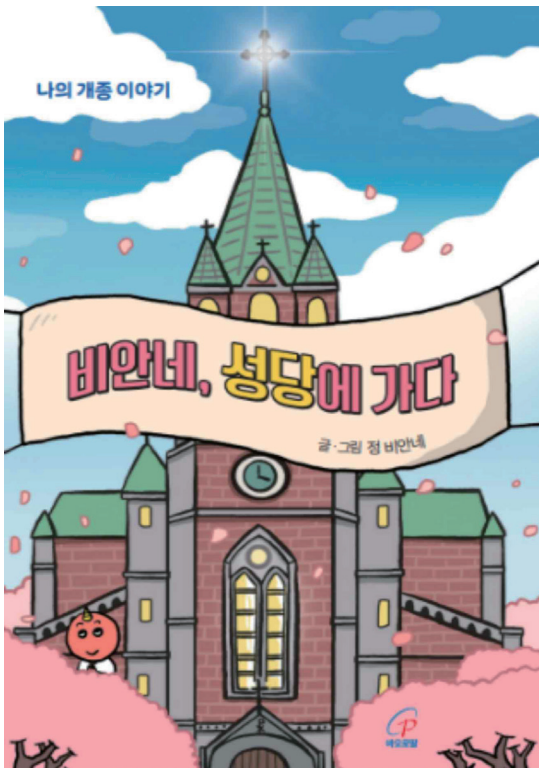
새로운 마음

언젠가 전례봉사자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신부님께서 "반주자는 두 손으로 두 발로,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몇 배의 큰 은총을 받은 반주자들께서는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전기가 통하듯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투정도 부리며 외면하고 싶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반주로 주님을 따르며 찬미할 것입니다. 이런 제 다짐을 어여뻐 보시고 주님께서서는 갑상선 암 투병 중에도 두 손과 발을 무사히 지켜주셨고, 발을 다쳐도 오르간 페달을 밟는데 조금의 지장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미영광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비안네, 성당에 가다 _나의 개종 이야기

정 비안네 | 336쪽 | 17,000원



새벽 별을 바라보다 문득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 교회를 찾아간 개신교 신자로 팔레스타인 선교사 체험을 하다 “다미안 신부”와 “교부들의 신앙”을 읽고 감동을 받아 가톨릭의 보물과 가치를 찾아 나서게 된 여정을 뿔 달린 빨간 도깨비 캐릭터에 담아 그린 만화.

이 책은 비신자나 가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입교할 용기를 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잠시 쉬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층 의미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이끈다.

가톨릭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나누는 지은이는 자신의 체험이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란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윤여홍 시몬 신부
사목국 주일학교 담당

+ 찬미 예수님!

윤여홍 시몬 신부입니다. 저는 지난 2024년 11월 20일부터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 상징물 ‘십자가’와 ‘로마 백성의 구원 성모 성화’를 리스본 교구로부터 인계 받기 위해 각 교구에서 선발된 한국 대표단과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한 6일 간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청년·청소년들의 유입은 줄어들고 기존의 신자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마저 멀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WYD 상징물 전달식’을 함께하면서 교회의 우려와 달리 청년들은 아직도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느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 중 함께 한 청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이번 상징물 전달식을 통해 다시금 하느님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신앙인으로 사는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 하느님을 위해서 서울 WYD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에는 하느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7년 서울 WYD 주제 성구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 33)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기와 위로를 얻으며, 희망의 순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WYD 상징물 전달식을 함께 하며 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그 여정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여정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려 합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신앙의 삶을 위해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청년·청소년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지칠 때 ‘용기를 내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느님께 맡겨라

김기섭 요셉
실습의 해, 구담 본당

찬미 예수님!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는가요? 저는 올 한 해 신학교를 쉬며 ‘제2영성의 해’ 혹은 ‘실습의 해’를 지내는데, 여기저기 파견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과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다시 보았는데, 그 안에서 ‘이분들 정말 말 그대로 무한도전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무한한 도전까진 아니지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신부님들, 학사님들이 그러하였듯이 제 본당인 구담성당을 떠나 다른 본당에 머물기도 하고 타 지역에 가서 지내기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떠나 캄보디아에 있는 ‘안나스쿨’이라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육회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지내기도 하며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신학생이 프락티쿰 기간 동안 외국에 파견을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외국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24년에 캄보디아에 왔을 때 사람들이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오고 싶다고 요청했었고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덕분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주민과 함께 기도하는
김기섭 요셉 신학생

사실 저는 정치성향을 떠나 성격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변화보단 유지를 원하고, 실패하고 실망할까 도전하기를 꺼리고, 도전을 하면 기대감보단 걱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도전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지역을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셨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갖은 위협에도 맞섰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돕고 함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힘들어 하진 않을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마태 6,31),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마태 7, 11)라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선 제게 필요한 것을 늘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을 즐겁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한국도 더워지는 날씨일 텐데 다들 더위 조심하십시오. 늘 건강하고 ‘기쁘고 땃땃하게’ 살아가시는 나날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비신학생 모임 개강미사 및 3월 모임

3월 16일(주일) 교구청에서 주교님 주례로 ‘2025년 예비신학생 모임 개강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20여명의 예비신학생들은 미사 중 예비신학생 선서를 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소리 높여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교구 실천사항에 맞추어 방울토마토 모종을 직접 화분에 옮겨심고, 생명의 밥상을 차리는데 한 몫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신 기도문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제 안에 소중한 성소의 씨앗을
부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몸소 제자들을 부르시고
결례 머물게 하시고
세상 속에 당신의 빛과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명량한 생활로써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친구와 두터운 우정을 나눌 줄 아는
성실한 예비신학생이 되게 해 주소서.
또한 저희에게 부려주신 성소의 씨앗을
올바른 지향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알 림

1. 2025년 성소주일 행사(예비신학생&신학생)

일 자 : 5월 11일(주일)

장 소 : 원주교구 배론성지

2.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신동섭	10,000	이정숙	20,000	김지은	10,000
가 은	806,000	이가엘	10,000	이호숙	10,000	나양수	30,000
계 림 동	733,000			장희익	20,000	박영신	10,000
공 검	150,000	타교구 개인		정경자	20,000	백형숙	10,000
다 인	430,000	강윤순	5,000	정재식	50,000	변우경	5,000
모 전 동	712,000	김건화	10,000	정태진	20,000	송 경	10,000
목 성 동	1,658,000	김경란	20,000	조기섭	20,000	신미란	10,000
문 경	509,000	김경림	5,000	조원준	10,000	양수모	10,000
북 면	395,000	김경수	50,000	최경희	40,000	이길선	10,000
안 계	581,000	김근희	5,000	최영옥	10,000	이영섭	20,000
울 진	1,084,000	김길자	50,000	탁인자	30,000	전정희	5,000
의 성	1,481,000	김은경	10,000	황상호	30,000	정옥남	10,000
하 망 동	1,632,000	김정은	10,000	월 모 임 편		최은정	10,000
함 창	498,000	김현정	20,000	강면식	20,000	최인숙	10,000
후 포	377,000	김혜경	10,000	김애숙	100,000	현희성	10,000
		박승철	10,000	설영숙	10,000	황재해	5,000
교구 내 기타		박종대	10,000	설영숙	10,000	성 분 도 치 과	
김정현 신부	10,000	변진의	10,000	엄혜선	50,000	100,000	
백동수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임수애	120,000		
서동호 신부	20,000	송은옥	10,000	심재임	20,000	안 동 신 협	
안영배 신부	10,000	신옥선	10,000	최금주	50,000	100,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용찬	50,000	최현자	120,000		
정양모 신부	100,000	안명숙	20,000	황순자	120,000	은총의 거울 Pr	
정철환 신부	10,000	안안택	10,000	이 길 선 편		25,000	
박경순	20,000	위은숙	10,000	강명희	5,000	정의의 거울 Pr	
박보라	10,000	유병현	10,000	권순옥	10,000	20,000	
박정렬	20,000	이귀호	10,000	김중향	5,000		
서영림	10,000	이임영	5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어제
를가하는일이 없으신 권옥하신 하느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조만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비람이 단신 뜻을 거역하는 유산이 되지 않기를
저도 그렇게 새롭고 공평한 것으로 되시길 기도합니다.
물이 오면 푸르름을 새이내듯이
죽은 듯 보이는 겨를나무들이
'하느님, 주님,

안배하셨습니다.
제 생명을 주님 속에 맡겨드리고, 단신의 섭리에 저를
꼭으로 받들고 주님께 원망도 없이 맡기겠습니다.
어제 해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 안돼... 왜 하필 나에게...
곧 저 내뱉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와 밤이 온통 감동한 아들 속에 나
를 지별을 찾고 있던 나

저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원수 해 주시니 나 하혈병을 앓던 부인을 고쳐 주신 예수님이
원수나 괴로움 속에서도 지내야 할지...
이 별마루께 많은 사랑을 아파해야 할지,
저는 두렵습니다.
원수들을 가없이 여기시는 아버지 주님,

를 지별을 하신 분이 기도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